



최다빈

피겨 평창 최종 리허설



여자 싱글 최다빈·김하늘 22일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출전
아이스댄스 민유라·젬린 알렉산더組...페어 김규은·감강찬組도
北 려대옥-김주식組도 엔트리에...차준환은 캐나다서 회복 훈련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최다빈(수리고)과 김하늘(영춘중)이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평창 마지막 리허설을 치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최다빈과 김하늘은 오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지난 7일 끝난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1·2위로 올림픽 출전을 확정된 최다빈과 김하늘은 첫 올림픽 무대인 평창을 앞두고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최다빈의 경우 모진상과 부츠 문제, 발목 부상 등이 겹치며 이번 시즌 국제대회를 몇 차례 건너뛰어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국제대회 감각을 되살리게 된다.

최다빈의 매니지먼트사는 "선수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평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평창 출전을 앞둔 아이스댄스의 민유라-젬린 알렉산더 조와 페어의 김규은-감강찬 조도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다만 남자 싱글 대표인 차준환(휘문고)은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대회 출전 대신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복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올림픽 출전 선수들 외에 아쉽게 출전권을 놓친 남자 싱글의 이준형(단국대)을 비롯해 이시형(판곡고), 안건형(수리고), 여자 싱글의 박소연(단국대)도 출전한다. 평창올림픽 출전이 예상되는 북한 페어 려

대옥-김주식 조도 일단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일본은 하뉴 유히루를 제외하고 남자 싱글의 우노 쇼마와 다카기 게이시, 여자 싱글의 미야하라 사토코, 사카모토 가요리 등 평창 멤버들을 출전한다.

미국의 경우 네이션 천 등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빠진 채 제이슨 브라운, 스타 앤드루스 등이 나온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유럽 대륙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피겨 선수들이 메달을 겨루는 연례 대회다.

강릉에서 열리는 지난 대회에서는 네이션 천(미국)과 미하라 마이(일본)가 각각 남녀 싱글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日 고다이로 '징크스' 깰까

대표팀 주장 맡아...주장 맡은 선수 54년째 금메달 못따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고다이로 나옴(32·사진)이 '주장 징크스'와 싸우게 됐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일본대표팀 선수단을 이끌 주장으로 고다이로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일본의 동계올림픽 대표팀 주장은 선수들이 싫어하는 자리다.

일본은 1960년 스퀴벨리 동계올림픽부터 선수단 주장을 뽑아왔는데, 주장을 맡은 선수는 유독 해당 대회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54년 동안 일본 동계올림픽 대표팀 주장을 맡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와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노르딕 스키 간판 오기오라 겐지는 주장을 맡은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4위에 그쳤다.

1998년 나가노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인 오카자키 도모미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주장을 맡았는데, 감기로 인한 컨디션 저하로 여자 500m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일본대표팀 주장이 최고 성적을 거둔 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가사이 노리아키가 기록한 2위다.

현지 매체 스포니치는 일본대표팀 주장과 관련한 징크스를 소개한 뒤 "고다이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일본대표팀 주장으로 첫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고 전했다.

고다이로는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여자 500m와 여자 1,000m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스포츠포토)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소치 대회 은메달리스트이자 일본 스키점프의 '살아있는 전설' 가사이 노리아키(46)는 평창동계올림픽 일본대표팀 기수로 선정됐다.

가사이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출전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11일 평창올림픽 출전을 확정하며 올림픽 연속 출전기록



을 8회로 늘렸다. 동계올림픽 8회 연속 출전 기록은 사상 처음이다.

가사이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실력을 유지했다.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20년 만인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정현, 통산 두번째 메이저 3회전 도전
오늘 메드베데프와 격돌...상대전적 2연승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8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메이저 대회 3회전 진출에 도전한다.

정현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나흘째 경기에서 남자단식 2회전을 치른다.

16일 열린 1회전에서 미샤 즈베레프(35위·독일)에게 2세트 도중 기권승을 거둔 정현은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상대를 맞아 한 수 위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경기 도중 기권승으로 제력까지 아낄 수 있었다.

18일 2회전 상대는 다닐 메드베데프(53위·러시아)다. 메드베데프는 정현과 같은 1996년생으로 키 198cm의 장신이다. 정현보다 10cm 정도 크다.

상대 전적에서는 2014년 호주오픈 주니어 단식에서 정현이 2-1(6-3 3-6 6-1)로 이겼고, 지난해 11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4강에서도 정현이 3-2(4-1 4-1 3-4 1-4 4-0)로 승리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는 정현이 결국 우승까지 차지한 대회다. /연합뉴스

김유신
타이거즈 두번째 신인왕

유승철
프로에서 야구하니 좋아

문경찬
전광판 영상 자주 나와야죠

이적생 황윤호
난 실전에서 더 강해

'아기 호랑이'들 프로필 사진 찍던 날 '화기애애'

새로 출발하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새 각오를 다지며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17일 챔피언스필드가 모처럼 북적거렸다. 이날 KIA 선수들은 실내 연습장에서 새 시즌에 사용할 프로필·팬북 사진과 전광판에 노출될 영상 촬영을 했다.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될 이번 촬영의 스타트는 '아기 호랑이'들이 끊었다.

새해가 시작된 뒤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해온 신인들은 이날 유니폼을 곱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프로에서의 첫 프로필 촬영에 신인들은 어색해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다.

2018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번으로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세광고 출신의 좌완 김유신은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촬영을 하니 정말 프로에 온 게 실감이 남고 기분이 좋다"며 "내 목표는 신인왕이다. 타이거즈의 두 번째 신인왕이 되겠다는 각오로 올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프로 첫해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후배들을 맞은 고졸 2년 차 유승철은 "유신이가 중학교(순천이수중) 후배다. 프로에 왔다고 예전과 달리 낯두하게 대한다(웃음). 함께 프로에서 야구를 하게 돼서 좋다"고 웃었다.

신인들 만큼이나 긴장된 표정으로 촬영장을 오간 '이적생'도 있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건너온 내야수 황윤호가 어색한 표정의 이적생이었다. KIA의 고만인 유격수 백업 후보로 주목받는 그에게는 새 팀에서의 첫 일정이었다.

"모든 게 어색하다"며 웃은 황윤호는 "처음 소식을 듣고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다. 큰 실수 없는 수비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전에서 더 강한 편이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올 시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언급했다.

'예비역'이 된 문경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문경찬에게는 입단 후 첫 촬영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프로에 입단한 문경찬은 이해 1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다. 그리고 프로데뷔전 선발승 주인공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문경찬은 2015시즌이 끝나고 바로 입대를 하면서, 이번 겨울 처음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됐다.

문경찬은 "신인 때 교통사고가 나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그동안 내 프로필 사진은 합성 사진이었다. 나중에 대만 캠프에서 얼굴 사진만 찍어서 합성했다(웃음).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 내 등장 영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번호를 단 선수들도 있었다. 우안 박지훈이 39번에서 신인 시절에 사용했던 37번으로 바뀐 포즈를 취했고, 좌완 임기준도 56번이 아닌 2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운동을 위해 챔피언스필드에 나온 양현중은 "26번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며 임기준의 촬영을 지켜봤다.

지난해와 촬영과는 다른 변화도 있다. 바로 유니폼이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2018시즌을 보내게 된 KIA 선수들은 왼팔에 우승 엠블럼을 달고 당당히 포즈를 취하게 됐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 황윤호가 17일 챔피언스필드 실내 연습장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다.